절터서 찾은 '명작' 신라 불교유산들

불교중앙博 · 불교문화재硏 등 5월 12일~6월 25일 특별전

부처님오신날 맞아 3개 기관 공동
최근 신라불교 관련 발굴성과 조명
선림원지 금동입상 첫 공개돼 '눈길'
'신라왕경 · 지방 불교문화' 세미나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

지난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 발굴 현장에서 통일신라 추정 금동보살입상이 출토됐다. 대좌를 포함해 50cm에 달하는 대형 금동보살입상은 그 형태가 온전하고 출토지가 확인되는 불상 중 가장 컸으며,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보존처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부러지거나 형태가 변형되기 전 금동보살입상의 형태를 3차원 이미지로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 신라 불교유산 발굴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미등)은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황인호) ·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전 '명작-흙 속에서 찾은 불교문화'를 개최한다.

5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주, 삼척, 군위, 함안, 양양 등 절터에서 발굴된 불교문화재들이 대거 소개된다. 특히 화려한 영락장식, 광배에 조각된 섬세한 문양으로 신라 불교미술의 명작으로 꼽히는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이 5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됐다. 1장 '기와와 전돌: 사찰 건축의 재료'는 신라 사찰 건축에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기와와 전돌을 소개한다. 2장 '사찰의 장엄'에서는 사찰 건물 내외를 장엄한 다채로운 장식구가 선보이며, 3장 '금인(金人)으로 나타나신 부처님'에서는 절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다양한 재료와 크기의 불상을 전시한다.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5년간에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첫 공개된다.

4장 '사찰의 일상'에서는 1300년 전 신라 사찰에서 스님들이 사용한 생활용기나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5장 '왕경의 불교문화, 지방으로 전해지다'에서는 경주지역 출토품과 군위, 삼척, 함안에서 출토된 불교문화유산을 서로 비교할 예정이다. 군위 인각사지와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출토된 완형의 통일신라 정병 4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

특별전과 함께 신라 왕경 ·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살펴보는 자리도 진행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신라왕경과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주, 삼척, 양양에 분포한 신라 사찰의 최신 조사 ·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왕경과 지방 사찰의 불교문화를 비교 ·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제발표는 △경주 황룡사 회랑 외곽 공간에 대한 최신 조사 성과(최문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 왕경의 산지가람, 황용사의 실체와 성격(이영환, 불교문화재연구소) △신라 지방 승관사찰, 삼척 흥전리 사지의 조사 성과와 의의(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신라 지방 선종사원, 양양 선림원지 조사 성과와 의의(장정민, 한빛문화재연구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최태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유범(배재대학교), 유근자(동국대학교),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전시와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마련된다. 6월 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통일신라시대 정병의 특징과 양식'을, 임영애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가 '명작,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의 특징과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각 · 민화로 전하는 '다나의 꿈'

(사)다나, 오는 5월 21~26일 자선전시회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서
스리랑카 IT교육관 불사기금 모연



김법영 작가의 작품 '부증불감'

국제구호와 노숙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불교복지단체 (사)다나의 법당에는 조금은 특별한 후불탱화가 있다. 전각으로 구성된 후불탱화에는 부처님이 집을 고치고, 함께 공을 차며, 밥을 지어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모습들이 담겼다.

이 특별한 서각 후불탱화는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나누는, 아픈 이에게는 약을 나누는, 배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걸음이 필요하다'는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의 모토가 그대로 투영됐다. (사)다나의 전각 후불탱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다나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다나의 꿈' 자선전시회를 연다. 전시회 개막식은 5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번 자선전시는 스리랑카 오지 마을인 고디가무와(Godigamuwa)에 IT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불사기금을 모연하기 위해 열린다. 이를 위해 후재 김법영 전각 작가가 전각 작품 50여 점을, 자운 정혜진 민화 작가가 민화 작품 20여 점을 출품했다.

김법영 작가의 작품은 (사)다나 법당 후불탱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반야심경〉의 구절마다 우리를 닮은 부처님이 전각으로 표현됐다. 이는 "우리가 곧 부처"라는 작가의 뜻이 담겼다.

"스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 작품을 출품했다"고 말한 김법영 작가는 "(사)다나에서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 봉사하고 포교한다. 그런 모습들이 후불탱화를 조성하는 데 많이 참고가 됐다"면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처임을 확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다나의 자선전시회에 대해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다나 법당의 후불탱화에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삶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다시 종이에 다시 내려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스리랑카 산골 마을에 있는 절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려 한다"면서 "부처님 말씀과 교육의 기회를 주어 그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불사이다. 다나의 이 발걸음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고 감동을 주는 불교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힘찬 응원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다나 고문)은 격려사에서 "다나는 오는 7월경 스리랑카의 오지에서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에게 교육관을 지어서 컴퓨터 교육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관을 건립하려 한다"면서 "스리랑카 아이들의 교육관을 마련해주는 전시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사)다나 회장 탄경 스님은 "한 끼의 따뜻한 밥이나 따뜻한 옷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육이라는 나눔이 가장 중요하다. 즉, 지혜의 나눔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눔"이라면서 "이번 전시는 아주 작은 그림들로 교육관을 세워보고자 한다. 복은 나눔에서 시작되며 그 나눔은 천지를 덮는 복전이 된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삶은 실전이다.
허학(虛學)으로 가득한 껍데기는 가라!"
여기, 현실에서 통하는
최강의 공부 명상법이 시작된다!

공부를 어려워하며 일과 인생 사이에서 자신감을 잃고 흔들리는
공부 약자들을 위한 역전의 공부 명상법!
열등감을 실력으로 탈바꿈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력은 덤으로 얻게 된다.



"단순한 방법으로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리해서 삶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명상의 가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국내 최다(6개)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180여 편 수록
자현 스님의 30년 공부 내공과
머리가 확 트이는 명상 비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자현 스님
초등학교 성적표에 '가'도 있고, 학번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쁜 기억력에 독수리타법으로 속도마저 밀리는 자현 스님.
평범한 머리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명상법을 계발해,
6개의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7번째 박사학위를 앞두고 있다.

단박에 성적과 행복을 끌어올리는 명상 비법
최강의 공부 명상법

글 자현 · 그림 김재일 | 288쪽 | 값 18,000원